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연 구 활 동 결 과 검 토 보 고

2025. 11. 28.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정경

1. 연구단체 운영 현황

연구단체명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참여인원	이관우 대표의원외 4명	
활동기간	2025.3. ~ 2025.10.(8개월)	
연구 내용	연구주제	성북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성북형 둘레길 조성연구
	연구목적	미아리고개등 소외되었던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기존 자원과 선으로 연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성북형 순환 둘레길을 제안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성북구 미아리고개 역사문화 둘레길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

3. 주요연구활동 : 총12차례의 연구모임

○ 정책토론회(4회)

- 연구 계획 논의부터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예산 수립 방안 논의까지,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

○ 현장 방문(3회)

- 둘레길 노선 탐방 및 인프라 확인(성북구 일대)과 우수기관 벤치마킹(종로구 둘레길)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임

○ 연구용역 진행(3회)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전문성 확보하고 과업 진행 상황 점검

○ 이해관계자 간담회(2회)

- 주역주민(20여명)과 구청 관계부서(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등)와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견과 제안사항 청취

4. 연구활동 결과 및 정책 제언

○ 연구활동 결과

- 도시형 둘레길의 패러다임 전환
 - 단순한 녹색 인프라나 레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억을 도보 콘텐츠로 구현하는 서사형 걷기길을 목표로 함
 - 비전은 “시와 실-이야기로 잇는 성북의 문화서사”이며, 흩어진 점 단위의 문화자산을 선, 점, 면으로 통합하는 방식 채택
 - 전체 둘레길 노선은 6개 구간을 연결한 순환형 구조로 설계되어 전체를 돌거나 독립적으로 탐방할 수 있음
- 6개 구간의 특징 및 스토리
 - 제1구간(성북천): 물길 따라 기억을 복원하는 문학의 길(박완서 소설무대, 동도극장터)
 - 제2구간(동선동): 생활과 기억, 젊음과 예술이 공존하는 동선동(돈암동성당, 미암교회(남북피난민의 화합, (구)전차종점)
 - 제3구간(미아리고개): 경계의 문, 기억의 길(6.25전쟁의 비극과 이산의 한, 미아리 점성촌 역사)
 - 제4구간(아리랑고개): 영화처럼 걷는 길, 아리랑고개(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에서 유래된 고개이름)
 - 제5구간(정릉): 이야기로 잇는 시간의 길, 정릉(신덕왕후의 정릉, 교수단지, 흥천사)
 - 제6구간(성북동): 전통과 현대의 공존(만해 한용운의 심우장, 간송미술관, 길상사)

○ 정책제언

-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컨트롤타워 구축 : 역사문화둘레길 추진단(TF) 설치
 - 법적 안정성 확보 : 성북구 역사문화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주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및 공감대 형성 : 주민 주체 참여 프로그램 구축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실행 전략
 - 시범구간 우선 조성 : 전체6개 구간중 예산 효율성, 접근성, 기존 인프라 연계 측면에서 우수한 성북천 일대를 시범구간으로 선정하여 성공모델 창출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및 재원 다각화
 - 구청, 주민대표,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둘레길 운영협의체 구성
 - 서울시 매칭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문화체육관광부)등 재원다각화 전략 제시

5. 예산집행 현황

○ 연구활동비

- 수령액: 5,000,000원
- 집행액: 4,210,320원 (집행률: 84.2%)
- 잔액: 789,680원
- 주요 집행 내역:
 - 결과보고서 제작비: 2,893,000원
 - 회의관련 간담회비: 1,053,320원
 - 현수막제작: 264,000원

○ 정책개발비 (연구용역비)

- 수령액: 19,900,000원
- 집행액: 19,900,000원 (집행률: 100%)

6. 종합 검토 의견

○ 활동의 적정성 및 충실성

- 총 12차례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연구를 충실히 수행
- 특히 둘레길 노선에 대한 3차례의 현장실사와 종로구 둘레길 벤치마킹을 통해 물리적 환경과 운영 노하우를 깊이있게 파악했음
- 지역주민 간담회와 관계부서간 협력을 통해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현장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연구 성과의 실효성

- 단순히 역사문화 자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6개 구간 순환형 둘레길 마스터플랜 및 시와 실이라는 독창적인 문화서사 비전을 도출하여 성북구만의 차별성 확보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성북천 시범 구간 우선 조성 및 컨트롤 타워 구축, 조례 제정 등 단계별 실행 전략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구정반영 가능성이 높음

○ 예산 집행의 투명성

- 조례 제9조 제1항, 조례 제10조 제2항 1호, 2호 관련규정에 맞게 연구활동비 및 용역비가 적절히 집행되었으며, 증빙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됨

○ 결론

- 본 연구회는 성북구의 풍부한 인문학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시의적절한 주제 선정
- 현장 중심의 충실한 활동을 통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성북형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모델 제시
- 향후 제안된 정책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필요